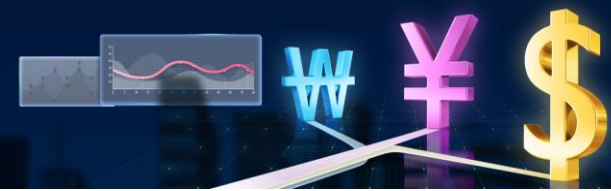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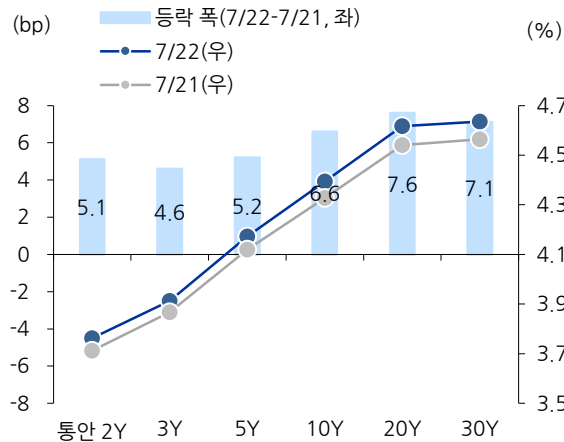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7/22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913%	4.6	2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94%	6.6	6.1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8.1	46.1	44.6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2.70	-18.0	-2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4.56	-62.0	-49.0
	미국채 2년물	4.299%	3.4	16.5
	미국채 10년물	4.656%	2.7	10.7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5.7	36.4	41.5
	독일국채 10년물	3.198%	1.3	5.2
	호주국채 10년물	4.975%	3.1	7.5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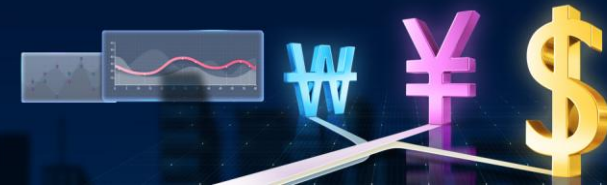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전구간 큰 폭 약세 마감. 전쟁 및 GDP 앞둔 경계심이 영향.
- 미-이란 간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계속되며 인플레이션 및 인상 우려 유지되며 금리 상승폭 확대. 다행히 6월 PPI는 둔화됐지만 현재 전쟁 노이즈가 반영되면 7월 수치는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. 한은 역시 전쟁의 2차 파급 효과를 우려했음.
- 익일 국내 2분기 GDP 발표 앞두고 있음. 금통위에서 거둬 강조하듯이 연간 GDP 전망치 상향 기정사실화 및 높은 실질 GDI 가능성 등 채권 투자심리 위축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전쟁 연동 상태 지속.
- 미국, SNS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할 때마다 미국은 이란 수도 인근 및 시내 시설 등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. 이란 지도부와 군부도 맞대응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긴장감 고조. 국제유가 상승세 계속되며 금리 상승 견인.
- 불안감으로 국채 20년물 입찰 부진하게 진행한 것도 영향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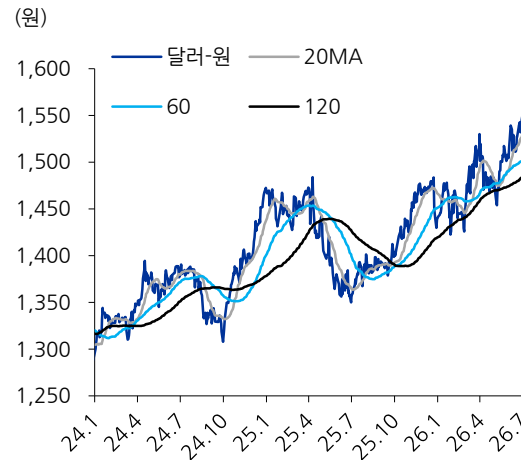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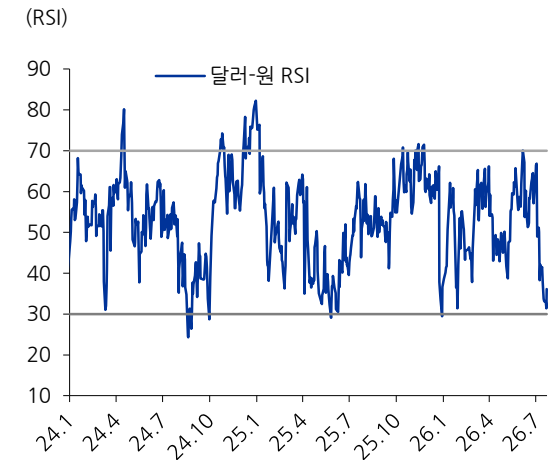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7/22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80.10	0.5%	-0.3%	2.9%
	달러지수	101.12	-0.1%	0.6%	2.9%
	달러/유로	1.14	0.1%	-0.5%	-2.8%
	위안/달러(역외)	6.77	0.1%	0.1%	-3.0%
	엔/달러	163.15	0.0%	0.6%	4.2%
	달러/파운드	1.34	0.0%	-1.2%	-0.7%
	헤알/달러	5.05	-0.7%	-0.7%	-8.4%
상품	WTI 근월물(\$)	86.83	2.3%	9.1%	51.2%
	금 현물(\$)	4,130.55	1.3%	1.7%	-4.4%
	비트코인(\$)	65,970	-0.8%	1.4%	-24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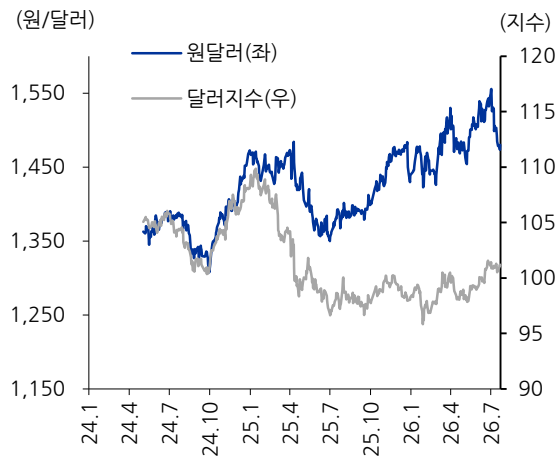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중동 리스크 확대 반영하며 7거래일만에 +6.70원 오른 1,480.10원 마감(야간 1,477.50원).
- 미국이 11일째 이란 공습을 이어갔고, 후티 반군의 사우디 해상 봉쇄 선언 이후 사우디산 원유 적재 선박의 홍해 회항 소식이 전해지는 등 원유 운송 차질 우려 높아짐.
- 한편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(+2.6조원)는 환율 상단을 제한. 코스피 조정 이후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도는 완화되고 있음(7/8일 이후 코스피 +3.8조원 순매수).
- 달러-원은 주간 대비 -2.60원 내린 1,477.50원에 야간 거래 마감. 외국인의 국내증시 매도 완화와 수출기업 달러 매도에 당분간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중동 리스크가 환율 하단 지지할 것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중동 긴장감 지속됐음에도 물밑 협상 기대감 반영하며 하락 마감(DXY -0.1%).
-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선박을 타격할 경우 인프라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강경 발언 이어가며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(WTI +2.3%).
- 다만 루비오 美 국무장관이 이란을 비판하면서도 이란과의 대화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물밑 협상 기대감은 유지되며 달러 강세를 제한.
- 선박추적업체 Kpler 데이터에 따르면 7/21일 홍해 통항 선박은 29척으로 7/20일 44척 대비 -34% 감소하는 등 홍해 운항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음. 미-이란 군사충돌 지속될 경우 유가와 달러 상승 압력 강해질 것.